

“ 배신당한 성도의 기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마르쿠스 주니우스 브루투스(주전85-42)는 율리우스 시저의 친구였다. 그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정치가요 군인이었다. 주전48년 폼페이가 시저를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 편이 되어 시저를 반대했다. 마침내 폼페이는 패배했고, 시저는 브루투스를 용서하고, 그에게 북부 이탈리아 가울지역과 도시들을 맡겼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주전 44년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지누스에게 설득되어, 그해 3월 15일 20여 명의 자객단과 함께 로마 상원으로 들어오는 시저를 죽였다. 그때 시저는 “오, 너 브루투스(Et tu, Brute!)”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가 믿고 신뢰한 친구요, 그가 세운 장군이 자신을 죽일 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임종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자주 경험한다. 그것도 믿고 사랑했던 가까운 동역자가 배신했을 때, 더 큰 부담과 아픔이 우리를 괴롭힌다. 다윗을 배반한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 다윗이 가장 신임한 모사 아히도벨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압살롬일까? 사울왕 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저들은 평소에 내밀한 사정까지 터놓고 이야기하던 밀접한 관계였으며, 성전에도 함께 출입하던 신앙동지였다. 그런데 저들은 동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

또 저들은 구밀복검(口密腹劍)식으로,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흘리면서 속에는 비수를 품고 시인의 허(虛)를 찌르는 비열한 이중적 인물이었다. 저들은 이처럼 동역자를 배신하고도 수치심이나 가책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시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의 생태이다. 차라리 원수였더라면, 처음부터 경계할 수 있었고, 또 일격에 타도할 수도 있으련만 상대가 동역자였기 때문에, 달콤한 말로 미소를 지으며 대해오기 때문에 믿거라 하고 방심하다가 믿던 도끼에 발을 찍히게 된 시인의 고뇌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인도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까지 한다” 고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 은 ‘술’ 이란 뜻도 있어 시인의 가슴속에 온갖 우고가 마치 숲처럼 우거지고, 덤불처럼 뒤범벅이 되어 질식할 상태임을 의미하고, ‘탄식’ 은 기가 막혀 허둥대며 배회하는 사람의 외치는 호소를 뜻하는 말로, 시인의 고뇌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과연 마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러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다.

시인의 고통은, 비단 자기 개인의 위험 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온 성에 불법과 비리가 범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외부로부터의 적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겠거늘, 턱밀의 배신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시인의 비분강개(悲憤慷慨)가 어땠을까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신임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참담한 상황 중에서, 시인이 보여준 반응은 어땠을까?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친근하게 지내던 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실망과 허탈과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라리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서 역겨운 세태를 외면하고 은거하고 싶은 충동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는 것이다. 상대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 것이다. “저희를 멸하소서”,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피멸의 웅덩이에 빠지리라” “저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를 연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신다. 다윗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도피나 보복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고통에 처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반응이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고통에 처한 자의 최상의 해결책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일임하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꾸준히 기도를 계속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16호] 2018년 10월 2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5:42-4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oseph of Arimathea”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경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 ”

■ 마 5:4

본문 마 5:4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보통 슬픔이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격렬한 슬픔을 뜻하며 애곡, 통곡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슬퍼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위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바라보며 호소하고, 의지하는 애통은 참으로 복 된 슬픔입니다. 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여덟 가지 복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 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울릴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약한 자력으로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애통은 자발적으로 슬픔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 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8:26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까?

1. 자신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뱃새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17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 곧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통인 것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출 32:32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간구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통곡의 벽에 기대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3. 교회의 여섯 번째 표지는 사랑이다

애통하는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마 5:4에서 말하는 위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애통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핍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맺는 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영적인 힘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양준경 장로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11: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6(구주강림 2)...	다 합 께	
송 영 Doxology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05(10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12:4-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순례자의 삶”.....	서명철 목사	
* 찬 송 Hymn435(492)...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오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혜란박수강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애듯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 연합총회 / 9일(주) 3부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8교구 모임 / 13일(목) 오후 6시 월곡역 코업스타클래스 9층
- 정책당회 / 15일(토) 오후 3시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마지막 세례식인 12월 세례식이 12월 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써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12월 9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1시30분부터 문답 총정리가 있으며 바로 리허설 후에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임승한집사(010-7743-32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노선균(흉부외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69명	238명	191명	1,298명	13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2일	헌 금	51,998,310	
	찬양운영비		7,290,000
	교회학교운영비		255,000
	행 사 비		671,500
	출 판 비		390,000
	복리후생비		256,228
	통 신 비		100,000
	수도광열비		397,000
	차량유지비		1,519,300
	소모품비		499,840
	환경유지비		80,000
	수선유지비		743,500
	식당운영비		2,477,440
	합 계	51,998,310	14,679,808